



NEW YORK 46 °F

한국일보(본국) hankooki.com THE KOREA TIMES

search

뉴스 | 안내광고 | 한인업소록 | 날씨 | 카페 | 라디오 서울

· 종합 / 사회 · 오피니언 · 로컬경제 · 문화

로그인 회원가입

Los Angeles | New York | Washington DC | San Francisco | Chicago | Seattle | Atlanta | Texas | Denver | Hawaii | Vancouver | Toronto

종합/사회

뉴스홈 > 종합/사회

크게 작게 기사프린트 기사이메일

NEWS 많이 본 기사

- 종합사회
- 커뮤니티

## 상항서 3인 3색 작가 작품 전시회

SF 샌드라 리 갤러리서, 신원주,데이빗 장, 동 판3명 페인팅,드로잉,믹스 미디어

입력일자: 2009-11-24 (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소재한 샌드라 리 파인 아트 갤러리에서 한인 데이빗 장과 신원주,베트남계 동 판(Dong Phan)등 3인 아티스트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릴 전시회는 데이빗 장이 나무와 메탈을 이용한 믹스 미디어 작품, 신원주씨가 펜슬과 펜을 이용한 드로잉, 동 판씨는 말을 소재로 한 페인팅등 3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특색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빗 장은 15년 전 페인팅으로 시작했으나 3년전부터는 나무와 메탈을 이용한 믹스 미디어 작품에 치중하고 있다. 1975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4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주 해온 데이빗 장은 미네소타에 있는 성 베드로 비주얼 아트칼리지에서 파인 아트를 전공했다. 1.5세 작가인 그는 나무와 메탈을 불로 태우거나,코로락스나 소금으로 용해시킨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청바지 전문의류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작품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캔의 색깔을 없애고 종이처럼 태운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산 라몬의 캘리포니아 하이스쿨을 졸업후 코넬대학교에서 파인 아트를 전공한 신원주씨는 펜과 펜슬을 이용한 드로잉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욕의 Pratt Institute에서 미술심리치료도 전공한 신원주씨는 '문과 문지방등 어떤 선택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살에 이민을 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닌 기간을 제외하고는 베이지역에 줄곧 거주해 온 신원주씨는 관객과 작가와의 친근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술 전문학원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명의 작가인 베트남계 동 판씨는 말(horses)을 소재로 한 강인한 색채의 페인팅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21일(토) 오후4시에는 3명의 작가 초청 리셉션을 겸한 작품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 3명의 작품 전시회가 열고 있는 샌드라 리는 상항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안 활동 해온 서양화가로 6개월전 유니온 스케어 인근의 현 위치로 이전하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오픈 시간 : 월-금요일 오전11시- 오후5시 30분.

샌드라 리 갤러리 주소 251 Post St, Suite 310. San Francisco.CA 94108. (415)291-8000. 이

메일 : art@sandraleegallery.com.

<손수락 기자> soorakson@koreatimes.com

- '날 왜 한국호적에 올렸나요' 2세대
- 이민개혁안 15일 상정
- 기내서 출생한 아기 국적?
- '리셋 버튼' 을 눌러라
- 날로 치열해지는 월마트 대 아마존 싸
- 주택침입 강도 날뛴다
- 탈선 한인여학생 매춘 이 지경... 어
- Q & A - 영주권·시민권자
- "일용직 찾는 미국인 급증
- '특정 외모 골라 때리기' 번진다

Market Lofts 55 Downtown LA Lofts MarketLoftsAuction.com All bids subject to Seller's Reserve KENNEDY WILSON

홈으로 회사안내 게임월드 한인업소 구독신청 배달사고접수 Place an AD 독자의견 안내광고신청 광고안내 라디오서울 생방송



THE KOREA TIMES 소년한국일보 hankooki.com 서울경제

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1997-2006 Kore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